MARKIVE

MACRO RESEARCH

2026 년 10 월 22 일 | 통화정책과 한국 경제

한국의 금리는 얼마나 더 오르고 얼마나 오래 유지될까

AI 호황과 가계의 체감 경기로 읽는 추가 인상과 유지의 조건

CONTENTS

01 추가 인상의 근거와 동결의 의미

02 반도체 호황이 가계에 전달되는 과정

03 가계소득의 구성과 소비 회복

04 금리 인상과 차주의 상환 여력

05 추가 인상과 고금리 유지 전망

06 금리 전망을 투자 판단에 적용하는 방법

07 결론과 전망을 바꿀 조건

A 자료 기준과 자체 계산

작성 기준일 2026.10.22 · 공통 비교기간 2026 년 2 분기

thisismarkive.com

MARKIVE VIEW

추가 인상 이후에도 높은 금리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한국은행은 7 월과 8 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3.00%로 올린 뒤, 10 월 22 일에는 만장일치로 동결했다.[1] 투자자에게 남은 질문은 어디까지 더 올리고, 높아진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다. 반도체 호황과 가계의 완만한 회복 속에서 추가 인상의 근거와 부담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은은 대외 불확실성과 앞선 인상의 파급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기다리되,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검토하겠다는 방향은 유지했다.[2] 이 글은 이번 동결을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둔 채 정책 효과를 확인하는 단계**로 해석한다.

현재 금리 확정	11 월 전망	2027 년 1 분기 전망	이후 유지 전망
3.00%	3.25%	3.50%	적어도 2027 년 상반기

11 월 이후는 공식 경제자료와 외부 전망을 종합한 MARKIVE 의 조건부 판단이다. 상반기 유지는 그 직후 인하를 뜻하지 않는다.

이 글은 **추가 인상 이후에도 높은 금리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반도체 이익의 향후 수요 파급을 고려하되, 회복이 더딘 가계와 내수기업의 부담이 인상 속도를 제약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물가와 금융여건, 소득의 확산, 차주의 상환 여력을 차례로 살펴본다.

목차

물가와 금융여건 → 반도체 이익의 확산 → 가계와 기업의 상환 여력 → 금리 전망과 투자 판단

01 · THE RATE DECISION

추가 인상의 근거와 동결의 의미

금리 판단에는 성장의 크기와 함께 물가·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 아래 표는 현재의 소비와 향후 수요 전망, 주택·대출 흐름, 환율과 정책 시차를 구분해 정리한 것이다.

표 1 현재 수요와 향후 수요를 구분한 금리 판단

정책 쟁점	자료가 보여주는 상황	이 글의 판단
물가의 지속성	9 월 CPI 2.9%, 근원물가 2.8%. 10 월 한은 판단은 내년 물가의 상방위험을 시사	추가 인상과 높은 금리 유지의 근거가 남는다
현재 소비와 미래 수요	2 분기 실질 가계소득 1.5%, 소비지출 0.4% 증가. 한은은 이후 성과급·투자·세수의 파급을 예상	현재의 회복 지연은 인상 속도를 제약하지만, 내년의 수요 압력까지 배제하지는 못한다
주택·가계부채	전체 가계대출 감소와 주택관련대출 증가가 병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재확대	대출 총량만으로 주택시장 위험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환율과 정책 시차	7~8 월 인상 후 10 월 동결. 원화 강세에는 외환수급 개선과 통화정책 기조가 함께 작용했다는 한은 평가	파급효과를 점검할 시간은 확보됐지만 물가·금융안정 판단은 계속 필요하다

관측자료와 기관의 전망·평가를 구분한 표다. 가계 수치는 7~8 월 인상 이전이며, 정책·금융여건은 10 월 22 일 발표를 반영했다. 출처: [3].

[1]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2026.7.16)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2026.8.27)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2026.10.22).

[2]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2026.10.22).

물가 하락의 이유와 지속성을 확인해야 한다

9 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 근원물가는 2.8%로 8 월의 3.1%, 3.4%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공식 설명은 통신요금 기저효과 소멸의 영향을 강조한다. 하락 폭을 모두 수요 둔화의 결과로 읽기는 어렵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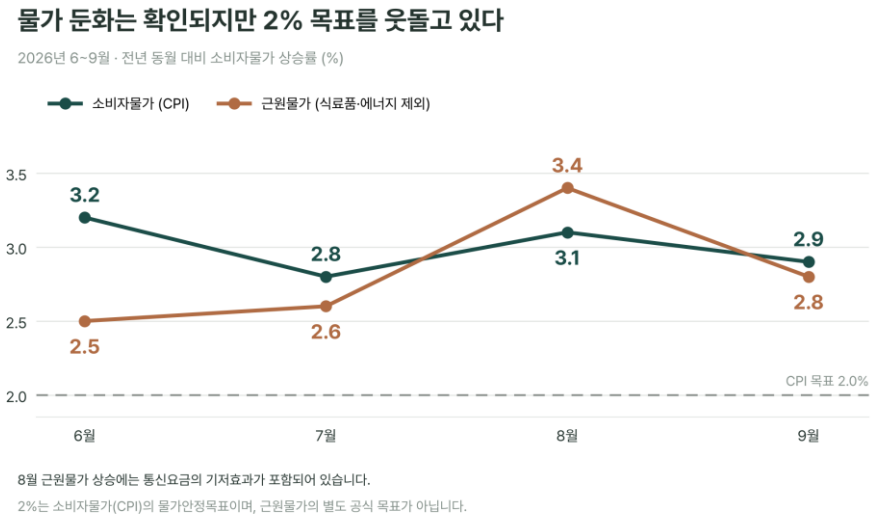


그림 1.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비계절조정. 근원물가는 식료품·에너지 제외로 통일했다. 2%선은 소비자물가 목표이며, 8 월 통신요금 기저효과를 임의로 뺀 값을 별도의 공식 시계열로 만들지 않았다. 출처: [5].

8 월 한국은행은 2027 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3%, 근원물가를 2.5%로 전망했다.[6] 9 월 보고서도 비용 전가와 수요 압력에 따른 물가의 지속성을 지적했다.[7] 10 월 22 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내년 물가가 이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인 수정 전망치는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8] 추가 긴축의 필요성을 평가할 때 반영해야 할 변화다.

주택·가계부채와 환율이 판단에 더해진다

10 월 결정문에 따르면 기타대출의 순상환으로 전체 가계대출은 감소한 반면, 주택관련대출은 증가했고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다시 커졌다.[9] 따라서 평균 소비의 약한 회복이나 대출 총량의 감소만으로 금융불균형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주택 구입과 연결된 신용의 흐름을 따로 살펴야 한다.

환율은 수입물가를 통해 물가 전망에 영향을 준다. 10 월 16 일 한은 자료는 최근 원화 강세를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 등과 연결했다.[10] 22 일 총재 설명은 외환수급 개선과 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함께 원인으로 들었다.[11] 금리 외에도 미국 금리·달러 방

---

[3]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2026.7.16)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2026.8.27) / 국가데이터처, 2026 년 2 분기 가계동향조사(2026.8.27) 가구당 월평균 자료이며 7~8 월 금리 인상 이전의 여건이다. / 국가데이터처, 2026 년 9 월 소비자물가동향 브리핑(2026.10.2) / 한국은행, 9 월 물가상황점검회의(2026.10.2) / 한국은행 채동우, 9 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강의 2026.9.18) 9 월 18 일 강의를 10 월 2 일 게시한 설명이다.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2026.10.22)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총재 기자간담회(2026.10.22).

[4] 국가데이터처, 2026 년 9 월 소비자물가동향 브리핑(2026.10.2) / 한국은행, 9 월 물가상황점검회의(2026.10.2).

[5]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2026.7.16)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총재 기자간담회(2026.8.27) / 국가데이터처, 2026 년 9 월 소비자물가동향 브리핑(2026.10.2) / 한국은행, 9 월 물가상황점검회의(2026.10.2).

[6]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총재 기자간담회(2026.8.27).

[7]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6.9.10).

[8]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총재 기자간담회(2026.10.22).

[9]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2026.10.22).

[10] 한국은행, 9 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2026.10.16).

[11]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총재 기자간담회(2026.10.22).

향·무역 및 자본 흐름이 작용하므로, 환율 안정을 인상의 효과로 전부 설명할 수는 없다.[12] 이 글은 환율 안정이 인상 속도를 조절할 여지를 주지만, 그 자체로 긴축 필요성을 해소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

물가·주택·환율의 흐름에 더해, 성장의 혜택과 금리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살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반도체 호황이 만든 소득과 가계 현금흐름을 연결한다.

02 · AI BOOM AND GROWTH

반도체 호황이 가계에 전달되는 과정

2026 년 2 분기 실질 GDP 는 전년 동기보다 3.7%, 명목 GDP 는 26.4% 증가했다.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5.7% 늘었다. 생산량, 가격을 포함한 부가가치, 교역을 통해 확보하는 구매력이 서로 다른 속도로 커진 것이다.[13]

수출가격 상승으로 같은 물량을 팔고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것은 실제 경제적 이익이다. 다만 명목 GDP 의 급증을 국내 소비와 고용의 동일한 증가로 읽을 수는 없다. 이익이 기업에 유보되는지, 임금·성과급·배당·세금·투자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국내 수요와 물가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 명목 성장의 크기는 긴축을 감당할 힘이 모든 경제주체에게 생겼다는 증거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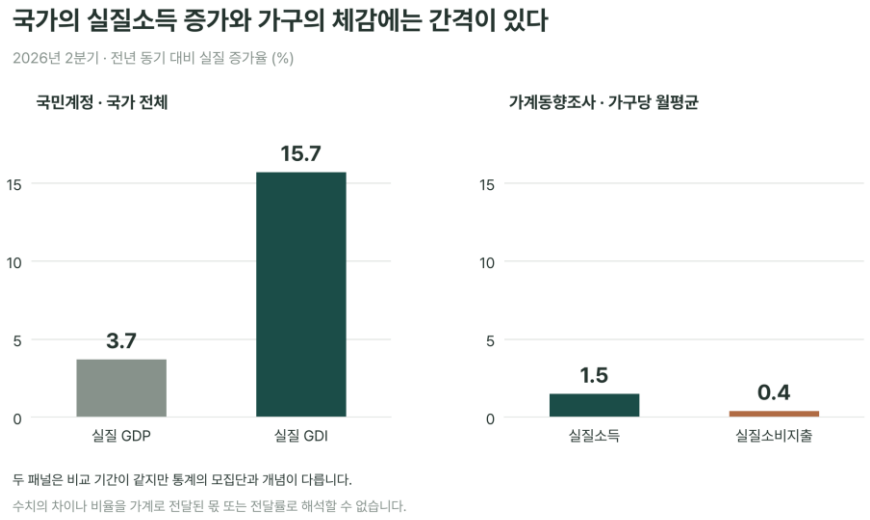


그림 2. 2026 년 2 분기 전년 동기 대비. 국민계정과 가계동향조사는 모집단과 개념이 다르다. 막대의 차이나 비율을 기업소득의 '가계 전달률'로 계산할 수 없다. GDI 와 GNI 도 구분한다. 출처: [14].

[12]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파급경로(2026.10.21 확인).

[13] 한국은행, 2026 년 2 분기 국민소득 잠정치(2026.9.8) 명목 GDP 와 실질 GDP 를 구분한 국민계정 자료다. / 한국은행, 2 분기 국민소득 기자설명회(2026.9.8) 실질 국내총소득 GDI 는 국민총소득 GNI 와 구분한다.

[14] 한국은행, 2026 년 2 분기 국민소득 잠정치(2026.9.8) / 한국은행, 2 분기 국민소득 기자설명회(2026.9.8) / 국가데이터처, 2026 년 2 분기 가계동향조사(2026.8.27).

수출의 구성은 호황의 집중도를 보여준다. 같은 발표본의 월별 수출액을 합산하면,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분기 41.4%에서 3 분기 46.5%로 높아졌다. 9 월 수출 증가액 가운데 반도체 증가액의 비중은 79.3%였다.[15] 이는 수출 확대를 이끄는 힘이 특정 산업에 크게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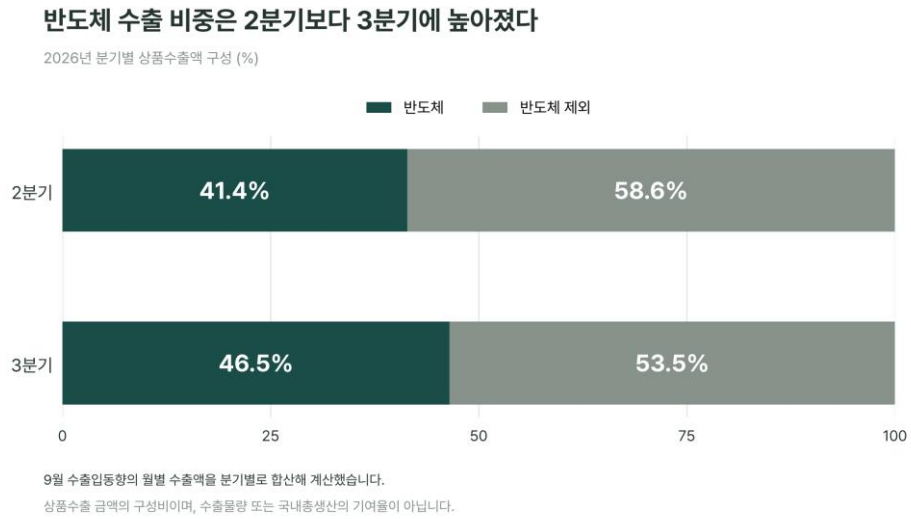


그림 3. 분기별 달러 명목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2026 년 10 월 1 일 공표의 월별 금액 합계로 계산했다. GDP 기여도나 AI 의 인과적 기여도를 뜻하지 않는다. 출처: [16], MARKIVE 계산.

그렇다고 다른 산업의 성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9 월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액도 전년 동월보다 23.1% 증가했다. 2 분기 반도체 제외 제조업 생산은 1.5% 늘었다. 최신 생산 자료에서는 7 월 5.3% 증가와 8 월 3.3% 감소가 엇갈렸고, 두 달의 원지수를 합하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1% 높다.[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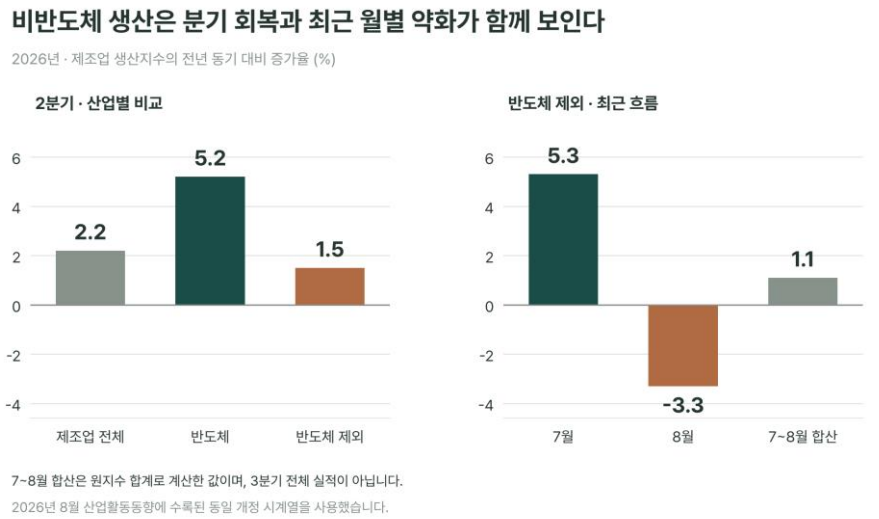


그림 4. 공통 분기와 최신 월별 신호를 분리했다. 7~8 월 합산 증가율은 지수 합계로 계산했으며 월별 증가율의 단순평균이 아니다. 8 월 자동차 생산 차질과 같은 품목·시점 요인 때문에 한 달의 하락을 경제 전체의 지속적 침체로 확장하기 어렵다. 출처: [18].

[15] 산업통상부, 2026 년 9 월 수출입 동향(2026.10.1) 월별 달러 수출액을 같은 발표본에서 합산했다.

[16] 산업통상부, 2026 년 9 월 수출입 동향(2026.10.1).

[17] 산업통상부, 2026 년 9 월 수출입 동향(2026.10.1) / 국가데이터처, 2026 년 8 월 산업활동동향(2026.9.30) 반도체 제외 제조업 생산은 공식 원계열을 사용했다.

[18] 국가데이터처, 2026 년 8 월 산업활동동향(2026.9.30).

정책적으로 중요한 해석은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확산의 강도가 고르지 않다**는 것이다. 비반도체 생산의 한 달 감소를 경제 전체의 지속적인 침체로 확대하면 조기 인하를 과도하게 예상하게 된다. 반대로 명목 수출의 급증만 보면 가계와 내수기업의 금리 부담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달러 수출액에는 가격 변화가 포함되며, 반도체 제외 품목에도 AI 투자와 연관된 장비 등이 남아 있다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내년의 수요까지 본다

한국은행의 9 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에서는 기업이익이 설비투자, 세수와 재정 여력, 이후의 성과급과 소비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시한다. 내년에도 이러한 파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동시에 수혜가 관련 기업과 직접 종사자에 집중되면 폭넓은 소비 회복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19]

10 월 22 일 총재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8 월 전망치인 3.3%, 2.9%를 상당폭 웃돌 것으로 평가하고, 소득 여건 개선에 따른 소비 회복의 확대를 예상했다.[20]

이 경로의 핵심은 **기업에 먼저 도착한 소득이 얼마나 지출로 전환되는가**다. 소득 확산에 대한 전망을 평가하려면 가계소득의 증가 규모뿐 아니라 구성과 지출 배분도 확인해야 한다.

이 글에서 AI 호황은 반도체 수요를 이끄는 배경이다. 사용한 수출·생산 통계가 AI 와 관련된 효과만 따로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도체 수출 비중을 AI 의 GDP 기여도라고 부르지 않는다.

[19] 한국은행 채동우, 9 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강의 2026.9.18).

[20]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총재 기자간담회(2026.10.22).

03 · HOUSEHOLD ECONOMY

가계소득의 구성과 소비 회복

2 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6 만 5 천원에서 529 만 5 천원으로 늘었다.
명목 증가율은 4.5%, 실질 증가율은 1.5%다. 같은 기간 실질 소비지출은 0.4% 증가했다.[21] 국민경제 전체의 소득 개선과 평균 가계가 체감하는 구매력의 개선에는 온도 차가 있다. 서로 다른 통계의 차이를 전달률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총량만으로 가계 수요의 과열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보여준다.

소득 증가분의 구성은 그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월평균 소득 증가액 23 만원 가운데 근로소득 증가분은 2 만 4 천원, 사업소득은 3 만 6 천원이었다. 공적이전소득 증가분은 15 만 8 천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약 68.7%를 차지했다. 나머지 소득의 순증가는 1 만 2 천원이다.[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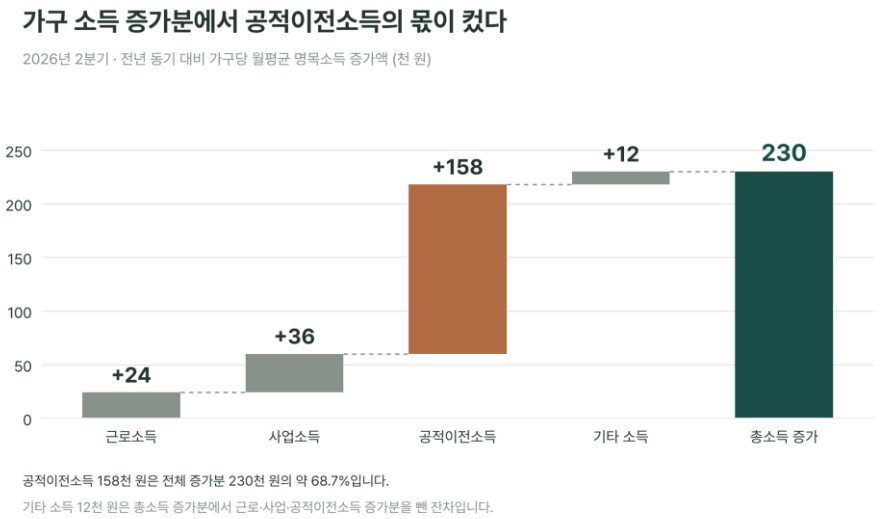


그림 5. 2025 년·2026 년 2 분기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의 차이. 기타는 총소득 증가분에서 근로·사업·공적이전 증가분을 뺀 잔차다. 공개된 반올림 금액 기준 계산이다. 출처: [23], MARKIVE 계산.

공적이전도 실제 구매력이다. 다만 이 구성은 소득 개선의 상당 부분을 민간 임금과 사업소득의 폭넓은 상승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공적이전의 재원이 반도체 세수라고 특정하거나, 이전이 없었을 때 소비가 얼마나 줄었을지를 이 자료만으로 추정하지는 않는다.

늘어난 소득은 소비와 흑자액으로 나뉘었다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함께 보면 소비 회복의 성격을 더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5.2%, 흑자액은 9.6% 증가했다. 소득 증가분 23 만원은 소비지출 증가 9 만 6 천원, 비소비지출 증가 2 만원, 흑자액 증가 11 만 4 천원으로 나뉜다. 이는 공표된 평균 금액으로 계산한 회계적 분해다.[24]

[21] 국가데이터처, 2026 년 2 분기 가계동향조사(2026.8.27).
[22] 국가데이터처, 2026 년 2 분기 가계동향조사(2026.8.27).
[23] 국가데이터처, 2026 년 2 분기 가계동향조사(2026.8.27).
[24] 국가데이터처, 2026 년 2 분기 가계동향조사(2026.8.27).

표 2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지출의 변화

가구당 월평균	2025 년 2 분기	2026 년 2 분기	증감
총소득	506.5 만원	529.5 만원	+23.0 만원
소비지출	283.6 만원	293.2 만원	+9.6 만원
비소비지출	104.0 만원	106.0 만원	+2.0 만원
흑자액	118.8 만원	130.2 만원	+11.4 만원

단위는 명목금액. 표의 수준에는 공표 반올림에 따른 차이가 있다. 흑자액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이며, 실제 예금 증가나 금융자산 순매입을 뜻하지 않는다. 이 분해는 추가 소득의 소비성향이나 금리 인상의 인과효과를 추정한 결과가 아니다.

근로·사업소득의 증가는 완만했고, 늘어난 명목소득의 일부는 흑자액으로 남았다. 평균 소득의 증가만으로 소비 회복의 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가계의 구매력 개선이 실제 지출로 이어지는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

지역별 파급과 최근 구매력 지표를 함께 살핀다

한국은행의 지역소비 연구는 반도체 관련 종사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성과급 등을 통해 소비가 늘어나는 경로를 제시한다. 다만 연구에는 전망이 포함되고, 직접 수혜가구와 주변 지역의 간접효과가 모두 분리된 것은 아니다. 전국적인 소비 회복을 평가할 때는 이러한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25]

KDI 의 10 월 12 일 경제동향은 AI 관련 수출·설비투자의 호조가 일부 다른 업종에도 확산되는 가운데, 가계 전반의 소비 개선은 완만하다고 평가했다. 고유가와 미약한 기조적 임금 상승이 구매력 회복을 제약한다는 진단이다.[26] 소득 확산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2 분기 자료 이후의 경기 진단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임금과 소비심리의 흐름도 엇갈린다. 9 월 30 일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의 7 월 임금은 명목 2.5% 증가했지만 실질로는 0.3% 감소했다.[27] 반면 9 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6.6 으로 전월보다 2.1 포인트 높아졌다.[28] 기대의 개선이 실제 구매력과 지출의 회복으로 이어지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

[25] 정희완·이재호, 반도체 호황의 지역소비 파급, BOK 이슈노트 2026-20(2026.8.31) 저자 연구이며 금통위의 공식 전망과 구분한다.

[26] KDI, 경제동향 2026 년 10 월(2026.10.12).

[27] 고용노동부, 2026 년 8 월 사업체노동력조사(2026.9.30) 조사 제목은 8 월이지만 본문의 임금 관측월은 7 월이다.

[28] 한국은행, 2026 년 9 월 소비자동향조사(2026.9.23).

04 · THE COST OF MORE HIKES

금리 인상과 차주의 상환 여력

명목 GDP 가 커지면 GDP 대비 부채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가계와 기업은 자신의 현금흐름으로 대출을 갚는다. 수출기업의 이익이 늘어도 소득 연결이 약한 자영업자와 가구의 상환 여력이 자동으로 늘지는 않는다. 금리 판단에서 총량 성장과 차주의 소득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2 분기 말 가계신용은 2,019.8 조원으로 전분기보다 25.9 조원 증가했다.[29]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이자지출도 12 만 8 천원에서 14 만 3 천원으로 늘었고, 공식 증가율은 12.1%였다. 총소득 대비 평균 이자지출의 비율은 2.53%에서 2.70%로 높아졌다.[30] 소득보다 이자지출이 빠르게 증가한 방향은 확인된다.

이 비율에는 무부채 가구도 포함되며 원금 상환은 빠져 있다. 차주별 DSR 이나 취약가구의 부담률이 아니다. 처분가능소득에는 이자지출이 비소비지출로 이미 반영되므로 이자를 다시 차감하지 않았다. 특히 2 분기는 7~8 월 인상 이전이다. 이 수치는 최근 인상의 피해가 아니라 인상 직전의 상환 여건을 보여준다.

추가 인상은 이런 초기 조건 위에서 작동한다. 대출금리 재산정과 차환, 소비·투자 조정은 시간을 두고 나타난다. 한국은행도 정책 효과의 시차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운용한다.[31] 가계의 근로·사업소득이 충분히 늘기 전에 차입비용이 추가로 올라가면 금리에 민감한 부문의 지출이 압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판단이다. 공개된 평균 자료만으로 그 충격의 크기를 계량화하지는 않았다.

차주의 부담은 대출 구조와 금융기관의 대응 여력에 따라 달라진다. 9 월 금융안정 설명회에서 한은은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과 취약차주 비중이 이전 인상기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취약기업의 부담에 주의할 필요성과 금융기관의 복원력도 함께 제시했다.[32] 부채 총량과 함께 차주별 금리 조건과 상환 여건을 살펴야 한다.

가계의 실질구매력도 함께 봐야 한다

금리 인상의 가계 영향을 평가할 때는 차입비용과 구매력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10 월 22 일 총재는 환율 안정이 수입물가를 억제해 특히 저소득층의 구매력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33] 다만 이 설명만으로 구매력 개선이 이자 부담을 상쇄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가구별 순효과는 부채 규모와 금리 조건, 소비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자료는 추가 인상의 부담이 업종과 차주별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 조기 인하의 필요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정책 시차를 고려하면 인상과 인하 모두 앞으로의 성장·물가·금융여건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34]

8 월 총재 회견에서도 국민경제의 소득 개선이 가계와 취약계층에 전달되는 속도가 더디다는 점이 언급됐다.[35] 투자자가 살필 쟁점은 앞으로 소득 회복과 차입비용 상승 중 어느 쪽이 더 빠르게 나타나는가다.

[29] 한국은행, 2026 년 2 분기 가계신용 잠정치(2026.8.19).
[30] 국가데이터처, 2026 년 2 분기 가계동향조사(2026.8.27).
[31]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2026.10.21 확인).
[32]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기자설명회(2026.9.22).
[33]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총재 기자간담회(2026.10.22).
[34]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2026.10.21 확인).
[35]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총재 기자간담회(2026.8.27).

05 · MARKIVE RATE OUTLOOK

추가 인상과 고금리 유지 전망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선택한 중심 경로는 다음과 같다. 공식 자료는 정책 방향을 평가하는 데, 외부 기관 전망은 구체적인 시점과 수준을 판단하는 데 사용한다.

표 3 MARKIVE 의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

구간	구분	금리 수준·경로	근거
2026 년 10 월 22 일	**확정**	**3.00% 동결**	금통위 결정 [36]
2026 년 11 월	전망	**0.25%포인트 인상 → 3.25%**	물가 지속성과 수출·투자 호조. 10 월 20 일 외부 설문 전망 참고
2027 년 1 분기	전망	**추가 0.25%포인트 인상 → 3.50%**	내년의 수요 확산과 물가 압력을 고려한 조건부 판단
그 이후 적어도 2027 년 상반기	전망	**3.50% 유지**	물가와 소득 확산, 차주의 부담이 전개되는 속도를 확인

10 월 22 일은 확정된 결정이며, 11 월 이후는 MARKIVE 의 조건부 중심 전망이다. 25bp 는 0.25%포인트다. 상반기 말은 유지 종료일이 아니며 첫 인하 날짜를 제시하지 않는다.

외부 전망의 차이는 반도체 호황의 지속성과 파급에 있다

10 월 20 일 발표된 로이터 설문은 10 월 회의에서 34 명 전원이 동결을 예상했다. 이후 전망의 중앙값은 11 월 인상, 내년 1 분기 추가 인상과 연말까지 유지였다. 예상 정점은 직전 조사보다 0.25%포인트 높아졌다.[37] 전체 응답자가 동일한 중기 경로를 선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표 4 기관별 금리 전망과 주요 전제

자료와 작성 시점	인상 종료 수준·유지 전망	주요 전제와 읽는 방법
삼성자산운용 9 월 말 작성한 10 월 전망	3.25%, 2027 년 유지	2028 년까지 반도체 사이클의 확대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중기 판단. 원문 5~6 쪽 [38]
삼성증권 김지만 10 월 2 일	2027 년 5 월까지 3.75%	강한 수출과 2027 년 성장 전망의 상향 가능성. 원문 2 쪽 [39]
로이터 경제전문가 설문 10 월 20 일	중앙값 3.50%, 2027 년 유지	기사에 인용된 전문가들은 내수 파급·물가·주택가격을 근거로 제시 [40]

표의 기관 전망은 모두 10 월 22 일 결정 전에 발표됐다. 삼성자산운용과 삼성증권은 별도 기관이며, 단순 평균으로 중심 전망을 산출하지 않는다. 설문은 시장가격에 반영된 확률이 아니다.

[36]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2026.10.22).

[37] Reuters, 한국은행 금리 전망 설문(2026.10.20) 10 월 14~19 일 조사다. 전원 동결 전망은 10 월 회의에 해당한다.

[38] 삼성자산운용, 2026 년 10 월 금융시장 전망(2026.9 월 말) 원문 5~6 쪽. 삼성증권과 별도 기관의 전망이다.

[39] 삼성증권 김지만, 10 월 한국 채권시장 전망(2026.10.2) 원문 2 쪽. 최종금리와 시점은 해당 기관의 전망이다.

[40] Reuters, 한국은행 금리 전망 설문(2026.10.20).

왜 3.50% 경로를 중심 전망으로 선택하는가

현재까지 확인된 가계소득과 비반도체 생산의 완만한 회복은 인상 속도를 신중하게 정할 근거다. 여기에 내년의 소득 확산과 물가 압력을 함께 반영해 전망을 선택했다. **현재의 회복 제약만으로 미래의 금리 상한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삼성자산운용의 낮은 정점 전망은 중기 반도체 둔화를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2028 년 성장세의 둔화 가능성이 2027 년 초의 추가 인상을 막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반대로 삼성증권의 높은 정점 전망을 중심에 놓으려면 성장 전망 상향이 국내의 지속적인 수요 압력으로 이어질지 더 확인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는 현재의 회복 제약을 반영하면서도 내년 수요 확대를 고려하는 경로를 선택하고, 가장 최근의 설문 중앙값을 구체적인 수준·시기의 기준으로 채택했다.

8 월 금통위원들의 6 개월 조건부 전망에도 3.50%가 포함돼 있었다. 당시 3.25% 중앙값은 인상 종료의 약속이 아니었다.[41] 다만 이 글의 정확한 정점과 시기는 외부 전망을 참고한 판단이며, 독립적인 계량모형의 추정치는 아니다. **추가 인상과 유지라는 방향에 대한 근거가 정확한 정점·시점에 대한 근거보다 강하다.**

유지 기간을 길게 보는 근거와 전망의 한계

높은 금리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근거는 물가 압력의 지속성과 향후 수요 확대에 있다. 외부 기관 전망도 인상 직후의 빠른 인하를 중심 경로로 제시하지 않는다. 유지 기간은 이 전제들이 실제 지표에서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까운 확인 지점은 3 분기 GDP 와 10 월 물가, 11 월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이다. 총재도 이 자료들을 통해 판단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42]

이후에는 근원·서비스 물가, 임금·소비, 주택·대출과 취약기업의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한다. 성과급과 투자가 폭넓은 수요로 연결되지 않으면 추가 인상 전망의 근거가 약해진다. 반대로 물가와 주택가격의 압력이 오래 지속되면 예상 정점이 높아질 수 있다.

[41]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총재 기자간담회(2026.8.27) / 한국은행 채동우, 9 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강의 2026.9.18).

[42]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총재 기자간담회(2026.10.22).

06 · WHAT IT MEANS FOR INVESTORS

금리 전망을 투자 판단에 적용하는 방법

10 월 동결은 회의 전부터 우세한 예상이었다. 10 월 12~15 일 금융투자협회 설문에서 응답자 100 명 중 93%가 동결을 전망했다는 점은 연합뉴스의 직접 보도로 확인된다.[43] 이는 사전 설문이며 당일 시장 반응이나 가격에 반영된 확률을 뜻하지 않는다. 투자 판단에서는 동결 여부와 함께 이후의 금리 경로가 현재 가격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야 한다.

이번 분석을 투자 판단에 적용할 때의 중심은 **추가 인상 종료와 빠른 금리 하락을 같은 전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인상 종료 이후에도 유지 기간이 길면 현금성 자산의 이자수익, 장기채의 가격 변동, 기업의 차환 부담은 서로 다른 경로를 보일 수 있다. 아래 내용은 이번 금리 전망에서 도출한 판단 기준이다.

표 5 투자 선택별 적용 기준

투자자가 고민하는 선택	이번 전망의 활용	실제 선택 전에 비교할 것
예금·단기채의 만기를 얼마나 길게 가져갈까	금리 급락을 전제로 서두르기보다, 현재 수익률을 고정하는 이점과 추가 인상 후 재가입 기회를 비교한다	만기별 세후 수익률, 자금 사용 시점, 중도해지 조건. 예금과 단기채의 가격·신용 위험 차이
장기 국채의 비중을 늘릴까	인상 종료만으로 즉각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지 않는다. 내 전망보다 더 빠른 인하가 가격에 반영돼 있는지 검토한다	현재 수익률곡선과 선도금리, 금리 민감도, 미국 금리, 기간 프리미엄과 국채 공급
반도체 호황을 내수주 회복으로 확대해도 될까	국내 매출·소득으로 호황이 전달되는 정도와 차입 부담을 기업별로 나눠 평가한다	이익 전망의 변화, 내수 매출, 차입금 만기·금리, 이미 반영된 주가 수준
회사채의 높은 이자수익이 충분한 보상일까	기준금리가 멈춰도 취약기업의 차환 부담은 이어질 수 있다. 국채금리 안정과 신용위험 완화를 구분한다	영업현금흐름, 만기 집중, 이자보상 능력, 신용 스프레드

시장가격과 실제 차입 부담

채권에서는 정책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가 특히 중요하다. 장기금리는 앞으로의 단기금리 기대와 여러 위험 보상을 반영한다. 기준금리를 동결해도 시장이 예상했던 인하 시점이 늦춰지면 장기채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실제 인하 전에 성장·물가 전망이 약해지면 가격이 먼저 상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전망이 맞는 것과 특정 시점의 장기채 매수가 유리한 것은 별개의 판단이다.

차입 부담 역시 기준금리와 동시에 멈추지 않는다. 낮은 금리로 빌린 자금의 만기가 돌아와 더 높은 금리로 차환해야 한다면, 기준금리 동결 기간에도 실제 이자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 주식과 회사채 투자자는 정책금리의 다음 변동뿐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기업의 부채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현재 수익률곡선에 반영된 인하 시점이나 개별 자산의 적정가치를 계산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장이 인하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거나 특정 자산을 지금 매수·매도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 이 글의 역할은 **'빠른 인하가 와야 성립하는 투자 선택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거시적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시장가격과의 비교가 더해져야 구체적인 투자 우위의 판단으로 이어진다.

[43] 금융투자협회 채권시장지표 관련 연합뉴스 보도(2026.10.20) 동결 전망 93%는 HWP 원표 대신 연합뉴스의 직접 보도로 확인했다.

07 · CONCLUSION

결론과 전망을 바꿀 조건

이 글의 중심 전망은 추가 인상 이후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경로다. 투자자는 **인상 종료와 인하 시작 사이의 기간**을 투자 판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채권은 예상한 정책 경로를 현재 가격과 비교하고, 주식·회사채는 동결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차환 부담을 살펴야 한다. 빠른 인하가 있어야 성립하는 투자라면, 인하가 늦어질 때의 수익과 자금 운용 계획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반도체의 성장 기여가 약해지고 내수가 이를 메우지 못한다면, 물가 안정과 함께 인하 여지가 커질 수 있다. 다만 대신증권에서는 2027 년 공급 부족과 출하 확대를, 한화투자증권은 2026~2028 년 투자 확대를 예상한다. 현재 확인한 산업 전망만으로 호황의 종료나 첫 인하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다.[44]

[44] 대신증권 류형근, 반도체 기대 이상(2026.10.7) / 한화투자증권 박준영, 지금 알아야 할 모든 소부장(2026.9.29)

APPENDIX · DATA AND SOURCES

자료 기준과 자체 계산

정보 기준일은 2026 년 10 월 22 일이다. 국민소득·가계동향·생산의 구조 비교는 2026 년 2 분기로 맞추고, 이후 월별 지표와 당일 통화정책방향·총재 기자간담회를 반영했다. 기존 통계의 관측기간을 최신 실적으로 바꾸지 않았으며, 향후 전망은 확정된 결정과 구분했다.

A. 관측기간과 발표일

표 6 자료의 관측기간과 발표일

자료	관측기간 / 발표일	비교 기준과 해석 범위
국민소득 [45]	2026Q2 / 9 월 8 일	전년 동기비. 명목 GDP·실질 GDP·실질 GDI 구분. 가계동향과 동일 모집단 아님
가계동향 [46]	2026Q2 / 8 월 27 일	전국 일반가구 월평균. 7~8 월 인상 이전의 상환 여건. 같은 날 금통위가 공개된 수치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지 않음
수출입동향 [47]	2026 년 4~9 월 / 10 월 1 일	같은 발표본의 달러 명목금액 합산. GDP 기여도 또는 AI 제외 성장률 아님
산업활동 [48]	2026Q2·7~8 월 / 9 월 30 일	반도체 제외 공식 원계열 사용. 7~8 월 합산은 3 분기 전체 아님
사업체노동력조사 [49]	임금 7 월 / 9 월 30 일	발표 제목은 8 월 조사지만 임금은 7 월. 가계 평균소득과 모집단 다름
가계신용·금융안정 [50]	2 분기 잔액·여름 금융여건 등 / 8 월 19 일·9 월 22 일	부채 총량과 가구당 이자지출을 동일 모집단의 통계로 연결하지 않음
소비자물가·소비자동향 [51]	9 월 / 10 월 2 일·9 월 23 일	근원은 식료품·에너지 제외로 통일. 심리와 실제 지출 구분
한은 조건부 전망 [52]	2026~2027 년 전망 / 8 월 27 일	6 개월 중앙값 3.25%는 당시의 전망. 10 월 재확인 또는 상반기 유지 약속 아님
외환시장 [53]	9 월 이후~10 월 14 일 / 10 월 16 일	해당 보고서의 동향. 기준일 실시간 환율 아님
시장 설문 [54]	10 월 12~15 일 / 10 월 20 일	100 명 응답. 93% 동결은 연합뉴스 직접 보도로 확인. 시장가격 내재 확률 아님
통화신용정책보고서·설명 [55]	주로 8 월 회의까지의 여건 / 보고서 9 월 10 일, 강의 9 월 18 일·게시 10 월 2 일	미래 수요의 파급과 정책 고려 요인. 10 월의 새로운 금통위 전망으로 취급하지 않음

[45] 한국은행, 2026 년 2 분기 국민소득 잠정치(2026.9.8) / 한국은행, 2 분기 국민소득 기자설명회(2026.9.8).

[46] 국가데이터처, 2026 년 2 분기 가계동향조사(2026.8.27).

[47] 산업통상부, 2026 년 9 월 수출입 동향(2026.10.1).

[48] 국가데이터처, 2026 년 8 월 산업활동동향(2026.9.30).

[49] 고용노동부, 2026 년 8 월 사업체노동력조사(2026.9.30).

[50] 한국은행, 2026 년 2 분기 가계신용 잠정치(2026.8.19) /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기자설명회(2026.9.22).

[51] 국가데이터처, 2026 년 9 월 소비자물가동향 브리핑(2026.10.2) / 한국은행, 9 월 물가상황점검회의(2026.10.2) / 한국은행, 2026 년 9 월 소비자동향조사(2026.9.23).

[52]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총재 기자간담회(2026.8.27).

[53] 한국은행, 9 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2026.10.16).

[54] 금융투자협회 채권시장지표 관련 연합뉴스 보도(2026.10.20).

[55]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6.9.10) / 한국은행 채동우, 9 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강의 2026.9.18).

자료	관측기간 / 발표일	비교 기준과 해석 범위
KDI 경제동향 [56]	공개된 최근 월별 동향 / 10 월 12 일	현재의 회복 제약에 대한 진단. 2027 년 상반기의 소비 실적이나 금리 전망 아님
기관별 금리 전망 [57]	삼성자산운용 9 월 28 일 자료·9 월 30 일 승인; 삼성증권 10 월 2 일; 로이터 설문 10 월 14~19 일·발표 20 일	조건부 전망. 삼성자산운용의 2028 년 성장률 언급은 향후 한은 전망에 대한 자체 예상. 로이터의 34 명 전원은 10 월 동결에만 해당
증권사 산업전망 [58]	2027 년 및 2026~2028 년 전망 / 10 월 7 일·9 월 29 일	기관별 전망. 전체 컨센서스나 검증된 미래 실적이 아니며 가격·출하·투자 시점 구분
10 월 금통위·총재 기자간담회 [59]	2026 년 10 월 22 일 결정·발표	동결은 확정 사실. 향후 성장·물가 및 정책 경로는 전망·평가이며, 11 월 인상이나 최종금리를 확약한 자료가 아님

B. 자체 계산

표 7 자체 계산의 입력값과 결과

계산	입력값·계산식	결과
2 분기 반도체 수출 비중	113,864 ÷ 275,260 × 100 (백만달러)	41.4%
3 분기 반도체 수출 비중	147,955 ÷ 318,416 × 100 (백만달러)	46.5%
9 월 수출 증가액 중 반도체	(60,295 − 16,621) ÷ (120,944 − 65,904) × 100	79.3%
9 월 반도체 제외 수출 증가율	{(120,944 − 60,295) ÷ (65,904 − 16,621) − 1} × 100	23.1%
7~8 월 반도체 제외 생산	{(110.6 + 97.2) ÷ (105.0 + 100.5) − 1} × 100	1.1%
소득 증가분 중 공적이전	(731 − 573) ÷ (5,295 − 5,065) × 100 (천원)	68.7%
소득 증가분의 지출·흑자 분해	230 = (2,932 − 2,836) + (1,060 − 1,040) + (1,302 − 1,188) (천원)	230 = 96 + 20 + 114
평균 이자지출 / 평균 총소득	128 ÷ 5,065 × 100 → 143 ÷ 5,295 × 100	2.53% → 2.70%

공표 반올림 금액을 사용했다. 이자지출의 공식 증가율 12.1%는 반올림 금액으로 계산한 값과 다르므로 공식 증감률을 유지했다. 가계소득 증가분의 분해는 인과적 기여도나 한계소비성향 추정이 아니다.

C. 분석의 범위

이 글은 공개된 경제지표와 기관 전망을 종합해 금리 경로를 선택하는 거시 리서치다. 관측치는 이미 일어난 상황을, 한은 설명과 기관 전망은 앞으로의 파급 및 정책 경로에 대한 판단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중심 경로는 이 자료들을 종합한 작성자의 선택이다. 중립금리·산출갭, 반도체가 없었을 때의 GDP, 최근 인상의 인과효과, 취약차주의 부실 확률은 추정하지 않았다. 전국 평균의 차이로 특정 소득계층의 효과를 식별하지 않았으며 기업의 글로벌 실적을 국내 부가가치로 직접 대입하지 않았다. 투자 부분은 정책 전망의 활용 기준이며 현재 시장가격 대비 기대수익을 산출한 자산배분 모델은 아니다.

[56] KDI, 경제동향 2026 년 10 월(2026.10.12).

[57] Reuters, 한국은행 금리 전망 설문(2026.10.20) / 삼성자산운용, 2026 년 10 월 금융시장 전망(2026.9 월 말) / 삼성증권 김지만, 10 월 한국 채권시장 전망(2026.10.2).

[58] 대신증권 류형근, 반도체 기대 이상(2026.10.7) / 한화투자증권 박준영, 지금 알아야 할 모든 소부장(2026.9.29).

[59]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2026.10.22)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총재 기자간담회(2026.10.22).

REFERENCE

참고 자료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2026.7.16)

2026-07-16 | 7 월 16 일 기준금리 2.50→2.75%. 6 월 물가 현황.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2026.8.27)

2026-08-27 | 8 월 27 일 기준금리 2.75→3.00%, 정책 판단.

한국은행, 2026 년 2/4 분기 국민소득(잠정)

2026-09-08 | 2026Q2 국민계정. 명목 GDP 전년비 26.4%는 보도자료 본문 기준. 영상 전사문의 상충 표기는 채택하지 않았다.

한국은행, 2026 년 2/4 분기 국민소득(잠정) 기자설명회

2026-09-08 | GDI 15.7%, GDP 디플레이터 등. GNI 15.6%와 구분.

국가데이터처, 2026 년 2/4 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6-08-27 | 공식 PDF, 인쇄 1~2·8 쪽 및 소득·지출 통계표. 가구당 월평균 천원. 공표 반올림 금액과 공식 증감률을 구분.

산업통상부, 2026 년 9 월 수출입 동향

2026-10-01 | 최종 수정 첨부표의 4~9 월 수출액. 같은 발표본의 백만달러 금액으로 분기 합계와 9 월 증가액을 계산.

국가데이터처, 2026 년 8 월 산업활동동향

2026-09-30 | 공식 PDF, 반도체 제외 제조업 표는 인쇄 46~47 쪽. 원계열 전년비와 계절조정 전기비를 구분.

정희완·이재호, 반도체 호황의 지역소비 파급에 관한 BOK 이슈노트(2026-20)

2026-08-31 | 거주지 기준 카드소비 연구. 저자 연구이며 금통위 공식 전망과 구분. 2026 년 말 누적효과·2027 년 성장 기여에는 전망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 2026 년 8 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2026-09-30 | 본문의 임금 관측월은 7 월. 가계동향조사와 모집단이 다름.

한국은행, 2026 년 2/4 분기 가계신용(잠정)

2026-08-19 | 분기말 잔액 및 전분기 증감.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2026 년 9 월) 기자설명회

2026-09-22 | 차주별 소득, 취약기업, 금리 부담 및 금융기관 복원력에 관한 공식 평가.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상시자료; 2026-10-21 확인 | 정책 시차와 선제적 운용의 일반 원칙. 특정 인상 회차의 충격 추정으로 사용하지 않음.

국가데이터처, 2026 년 9 월 소비자물가동향 부처브리핑

2026-10-02 | 9 월 CPI·근원물가 및 8 월 통신요금 기저효과 설명.

한국은행, 2026 년 9 월 물가상황점검회의

2026-10-02 | 물가 지속성과 기저효과 평가. 공식 게시물 및 한국금융연구원 전재 본문을 교차 확인.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2026.08)

2026-08-27 | 2026·2027 년 성장·물가 전망, 6 개월 조건부 금리전망 중앙값. 10 월에 재확인된 전망으로 취급하지 않음.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상시자료; 2026-10-21 확인 | 금리·기대·자산가격·환율 등 일반적인 파급경로.

한국은행, 2026 년 9 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2026-10-16 | 9 월 이후~10 월 14 일의 동향. 게시물과 KDI 전재 요약을 확인. 실시간 환율로 사용하지 않음.

한국은행, 2026 년 9 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2026-09-23 | CCSI 106.6, 1 년 기대인플레이션 2.7%.

금융투자협회, 2026 년 11 월 채권시장지표; 연합뉴스의 직접 보도

2026-10-20 | 공식 게시물 제목·일자는 확인했다. 10 월 12~15 일 설문의 93% 동결·7% 인상은 HWP 원표 대신 연합뉴스 직접 보도로 확인한 2 차 출처 수치다.

대신증권 류형근, 반도체: 기대 이상

2026-10-07 | 원문 PDF 1~3 쪽. 2027 년 공급 부족·출하 확대 전망. 기업별 NAND 가격 조정과 물량 증가를 구분. AlphaSquare 재게시 원문이며 시장 전체 컨센서스로 사용하지 않음.

한화투자증권 박준영, 지금 알아야 할 모든 소부장

2026-09-29 | 원문 인쇄 6 쪽의 2026~2028 년 투자 확대 전망. 후공정 투자·생산능력 확대 일정과 메모리 가격의 정점을 구분. 매경 증권 재게시 원문.

Reuters, South Korea central bank to hold rates October 22, hike in November: Reuters poll

2026-10-20 | Renusri K. 10 월 14~19 일 경제전문가 설문. 34 명 전원은 10 월 동결 전망에 해당. 중기 경로는 중앙값이며 시계별 응답자 수는 기사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음. Reuters 원문과 CNA 전재 확인. 전재 원문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26.10 월 금융시장 전망: 국내외 채권시장 전망

2026-09 말 작성; 데이터 9 월 28 일·준법 승인 9 월 30 일 | 공식 원문 5~6 쪽. 최종금리 3.25%, 2027 년 전 분기 유지. 2028 년 성장률 2% 초반은 향후 한은 전망에 대한 자체 예상. 삼성증권 전망과 별개.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6 년 9 월)

2026-09-10 | 주로 2 월 회의 직후~8 월 회의까지의 기간 대상. 물가·성장·금융안정 평가와 추가 인상의 시기·속도에 관한 정책 방향. 특정 최종금리의 약속 아님.

한국은행 채동우, 제 1046 회: 2026 년 9 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

강의 2026-09-18; 게시 2026-10-02 | 통화정책국 정책협력팀의 보고서 설명 전문. 기업이익의 투자·재정·임금·소비 파급과 제한적 확산 위험. 10 월의 새 금통위 전망으로 해석하지 않음.

KDI, 경제동향 2026.10

2026-10-12 | AI 수출·투자 호조와 가계 구매력 회복의 제약. 10 월호 제목과 게시일을 확인한 공식 페이지. 현재 동향 진단이며 2027 년 상반기 전망은 아님.

삼성증권 김지만, 10 월 한국 채권시장 전망: 쉬어 가는 금리상승, 추세 전환은 아직

2026-10-02 | 공식 PDF 원문 2 쪽. 10 월 동결 후 11 월·2027 년 2 월·5 월 인상, 최종금리 3.75%. 수출 강세와 내년 성장률 상향 가능성이 근거. 삼성자산운용과 별도 전망.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2026.10.22)

2026-10-22 | 동결 결정, 정책 방향 및 주택·가계대출 평가.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2026.10)

2026-10-22 | 공식 자막의 성장·물가 판단과 환율·구매력 설명. 환율 효과의 독립적 인과추정이나 가계 순효과 검증으로 사용하지 않음.